

학동 붕괴사고로 드러난 건설업계 ‘고질적 하도급’ 병폐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붕괴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인근의 다른 건물해체 공사 모습. 최고층부터 차례대로 철거해 내려가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조합과 철거계약 현대산업개발, 한솔기업→백솔건설로 불법 재하도급
석면철거 다윈이앤씨, 무자격 백솔건설에 불법 면허 대여해 공사 맡겨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업 발주처인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조차도 모르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았으며 현장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무면허·무자격 업체가 버젓한 회사인 듯 계약자로 행세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곳곳에서=13일 광주경찰청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구역 내 철거사업을 ▲일반건축물 철거 ▲사업구역 내 석면철거 ▲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일반건축물 철거 분야의 경우 조합측은 현대산업개발과 구역 내 610개동의 건축물 철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로 나서 ㈜한솔기업을 시공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 철거업무를 모두 넘겼다. 여기까지는 일반적 계약 형태다.

한솔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2008년), 석면해체 제거업자면허(2012년)를 취득한 철거 업체다. 장비 운송 및 철거 물품 처리 등 운송비를 고려하면 외지 업체가 광주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솔기업이 백솔건설에게 하도급을 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 등은 사고 이후 줄곧 “(하도급업체인)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솔기업과 백솔건설 간 하도급 계약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경찰도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구역 내 석면철거공사도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재개발조합측은 석면철거공사 업체로 다윈이앤씨와 자형이앤씨를 선정, 계약을 했다. 다윈이앤씨는 업계에서 ‘철거왕’으로도 불리는 이금렬씨가 운영하는 다윈그룹 소속 계열사로, 다윈이앤씨는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하고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로 맡겼다. 다윈이앤씨가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도 ‘불법’이다.

백솔건설은 당시 석면해체 관련 면허도 없어 다른 회사(대인건설)가 보유한 면허를 빌려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를 취득한 시기(2020년 11월)보다 5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조합측이 한솔기업·대선·거산 등 3곳과 계약한

지장물 철거 분야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한솔이 외지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추정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고리 꿰어야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형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하청업체가 또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사금액의 일부뿐만 아니라 남기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가 깊어질수록 공사금액은 크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종 하도급 업체는 낮은 수주자에게도 불구하고 이윤을 남기려야 하는 탓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이 때 ‘불법’인 재하도급 사실을 숨기려고 구두 계약만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현장에 만연해 있어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상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할 경우 3.3㎡당 20만~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하도급을 줄 경우 3.3㎡당 17~18만원선까지 떨어진다.

원청이 발주한 사업을 나눠먹기 위해 ‘회사 쪼개기’, ‘불법 저가 하도급’, 부실 시공 등이 이뤄지다 보니 면허 대여 등의 불법행위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광주·전남 건설지부 조직부장은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용이 내려가고 건설사는 더 싸게 공사를 맡고, 이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려 한다”면서 “학동 4구역은 이러한 건설업의 만연한 병폐가 결국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 22개 시군 3주간 사적모임 6→8명 허용

광주, 1.5단계 연장 사적모임 4인

14일부터 전남 22개 시·군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확대된다.

전남도는 13일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를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초부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유증·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플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전남도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확대 이유에 대해 “전남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의 76%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전에서는 종교시설 수용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광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 제한도 유지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구, 제주지역은 현행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되는 전남의 경우 스포츠 관람은 실내·실외 모두 5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전남도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방역은 강화한다.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사위장 등 감염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아이스링크,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학동붕괴 참사 이어 도심하천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안전컨트롤 타워 ‘시민 안전실’ 기능 상실

광주시, 안전 점검 특별주간 선포
“대대적 조직 재정비 우선” 의견도

광주시가 2주간 ‘안전 점검 특별주간’을 선포하는 등 시민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땀질식 땀복 처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참사에 이어 도심 하천에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내놔야 안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는 이미 ‘시민 안전도시’를 내세우며 2급 고위직 간부를 수장으로 삼고부서인 ‘시민안전실’까지 운영 중이지만,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시민 안전을 시정의 제1 가치로 삼고 향후 2주간(6월 14~6월 27일)을 안전 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예정된 철거 현장 8개소와 공사 현장 63개소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고 확실한 보완책이 마련된 경우 재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선 ‘안전컨트롤 타워’인 시민안전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청 일부에서 시민안전실이 상위급인 2급 부서의 권한을 내세워 주요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시만 하는 등 이른바 ‘상전(上典)놀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사고에 앞서 두 달 전에도 계림동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2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시민안전실 주도의 눈에 띄는 후속 대책은 없었다.

광주시는 계림동 붕괴사고 후 일선 자치구에 현장점검을 독려하는 공문만 수차례 보냈을 뿐, 후속처리 등은 사실상 방치했다. 또 이번 어린이 도심 하천 사망사고와 관련, 매년 여름이면 도심 하천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안전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계획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 어린이 사고<광주일보 2018년 7월 31일자 6면>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천 주변의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더라면, 이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이 희생되는 대형인재가 터지고 나면 반짝 후속대책을 내놔다가, 잠잠해지면 또 다시 무사안일한 과거 행정행태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예방대책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당 회사는 2021년 6월 10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자연에하버브리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무동4길 28-12(중동)
청산인 이종민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 5. 6.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2021. 7. 16.까지 그 채권액을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됩니다.

2021. 6. 14.
한국에어백신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81번길 25
청산인 김연숙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윤효남(670108-XXXXXX)
- 최후주소: 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7-1, 1003호 (충장로4가, 금양트리스센터)

피상속인 망 윤효남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5월57호로 신청하여 2021년 6월 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14일

- 상속인: 윤찬홍(980715-XXXXXX)
- 광주 남구 봉선로 134, 201동 601호 (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 신고기간: 2021. 6. 14. ~ 2021. 8. 23.
- 채권신고처: 상속인 윤찬홍의 주소

69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